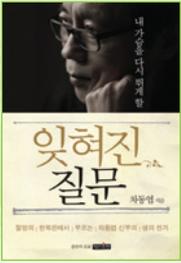


잊혀진 질문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타계하기 직전 가까이 지내던 신부에게 인생에 관한 절실한 질문 24개를 내놓는다. 한여름 거세게 떨어지는 우박처럼 우르르 쏟아낸 질문들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그렇기에 거부할 수 없고 모른 척 묻어 놓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 생명체의 몸살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회장은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만다. 그로부터 20년도 훨씬 더 지난 오늘, 저자는 우연히 자신에게 건네진 이들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가톨릭 사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삶의 희망을 주제로 1년에 600여 회의 강연을 소화해 내는 저자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서겠다는 게 그것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범상치 않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완전한 대답은 아닐지 모르나 실마리나 작은 고투리쯤은 충분히 될 법하다. 이 정도면 목은 체증은 시원하게 뚫린다. 저자는 책의 곳곳에서 다양한 변주로 희망을 얘기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도와줄 구원투수는 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자신이야말로 기다리고 바라던 구원투수이기 때문이란단다.

차동업 지음 / 명진출판사 / 368쪽 / 16,000원

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과 망해 가는 회사의 사장은 어떻게 다를까? 1936년생인 저자는 일본코카콜라, 존슨&존슨, 필립스 등 세계적 기업에서 40여 년 동안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일했다. 깊은 내공이 쌓여 어느 경영자든 10분만 대화하고 회사를 쓸쩍 둘러보면 앞날이 예측될 정도라고 한다. 그의 경험을 총망라해 체계화한 이 책은 그래서 불현듯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경영 이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환경의 변화나 업종에 상관없이 경영의 80%를 차지하는 원칙에 대해 털어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는 기술이나 유통, 판매방식의 차이 등으로 누구든 6개월만 공부하면 습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경영이념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이익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인간은 큰 것을 믿을 때 큰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사장이 이들 원칙을 숙지하고 실행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존조차 힘들다는 주장이다. 급할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원칙을 되새기는 게 사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도 조언했다.

아타라시 마사미 지음 / 임정희 옮김 / 이아소 / 279쪽 / 13,500원



나는 주식보다 연금형 부동산이 좋다



부동산시장이 공포 얼어붙었다. 이제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끝난 것일까? 연금처럼 부동산으로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자는 수년간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며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 전 방위에 걸쳐 직접 투자하거나 전문가로서 상담에 응한 경험을 토대로 월세로 돈을 버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비법을 공개한다. 불황은 아파트, 그것도 수도권 시장에만 해당하는 얘기고 부자들은 이미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한다.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오피스 등이 그 주인공으로 시세차익은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월세로 돈을 버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시세가 들쭉날쭉한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에 주목하고 적당한 상품을 고르는 법에서 주의사항과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박상연 지음 / 한스미디어 / 331쪽 / 15,000원

세상의 모든 우아함에 대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 분수, 동양풍 소파, 베네치아의 가장무도회, 야외에서 즐기는 식사, 귀뚜라미의 노랫소리, 영어 단어 'Yes'... 제각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아함이다. 아름다움이란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애저거리었고 지금도 여전히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유명 잡지 편집자인 저자가 섬세한 심미안을 동원해 골라낸 우아함의 주체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이다. 마치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세계를 유유히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저든다.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기도 하며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특정 단어이기도 하다. 유니콘, 오벨리스크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휘파람, 석양, 적란운처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게도 만든다. 크고 작은 일화와 다양한 상식을 곁들여 읽는 재미도 더했다. 저자를 통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심미안도 저절로 뜨일지 모른다.



제시가 커런 쟁킨스 지음 / 임경아 옮김 / 루비박스 / 272쪽 / 19,000원

앵글 속 지리학

삼각주, 선상지, 범람원... 이들 지리 용어는 대부분 들어 봤으나 실제 모습은 머릿속 상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구하도, 감입곡류 등 실생활에



서 잘 쓰지 않는 한자까지 많다 보니 지리는 인간의 삶과 밀착해 있음에도 동떨어진 분야가 돼 버렸다. 갖가지 사연을 품은 지리학자의 사진과 글에 흥미진진한 모험이 어우러진 이 책은 독자들이 지리학적 소통을 시도한다. 제대로 된 한 장의 지리 사진을 얻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높은 산을 오르고 절벽과 난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하는 수고도 감수했다. 덕분에 직업사진작가가 아님에도 정성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다. 독자에게 지리학을 이해시키고 우리 산야의 의미와 미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손일 지음 / 푸른길 / 232쪽 / 32,000원

10년 후 세상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에 따라 각자의 인생, 하는 일이나 목표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세상은 아찔한 속도로 변해 간다. 한편으로는 대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어지럽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상을 33개의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 보였다. 정확한 예측이란 어불성설이지만 가능한 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아갈 길을 내다보며 어떤 분야를 통섭하고 어떻게 자기계발을 해야 할지 가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뇌와 기계가 연결되는 신경 혁명, 필요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계약혼, 환경을 앞세워 화이트칼라를 대체하는 '그린칼라', 직장과 주거의 일치 내지 근접 시대, 패션이 아닌 과학으로 진화하는 옷, 굴뚝이 사라진 공장 등이 그것이다.

중앙Sunday 미래탐사팀 지음 / 청림 / 386쪽 / 16,000원



피터 드러커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신입사원, 중간관리자, 경영자. 이들이 갖고 있는 직장생활의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를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40여 권에 달하는 저서에서 이미 해결의 단서들을 잔뜩 풀어냈다. 그렇기에 그의 책들은 수많은 일터에서 활발하게 이용된다. 문제는 너무 방대해 읽기 어렵다는 것.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드러커학회를 이끌며 마케팅연구원, 닷케이비즈니스스쿨 등에서 강사로도 활약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드러커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바쁜 직장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만화까지 동원해 재미있고 가볍게 구성했지만 내용은 결코 알지 않다. 말단에서 사장에 이르기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직장생활의 정석'이라고 부를 만하다. 결론을 살짝 귀땀하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는 점이다. 역설하면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리오카 겐지 지음 / 한혜정 옮김 / 코리아닷컴 / 240쪽 / 12,000원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100세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평론가이자 조치대학 명예교수로 여든이 넘어서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지적인 생을 보내고 있는 저자가 택한 것은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삶의 긴장을 맥없이 놓아 버리면 안 된다며 제2의 인생을 향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라고 충고한다. 이를 화두 삼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50개로 정리했다. 이를테면 책을 읽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같은 책을 읽어도 느낌이나 깊이가 젊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추억으로 채우라고 권한다.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서 고집스레 지켜온 신념과 철학이 무너지고 재정립되는 것을 즐기라는 것이다. 그밖에 건강, 돈, 사랑, 관계 등 노년의 삶에 대한 저자의 조언들은 냉정하면서도 무척 현실적이다.

와타나베 쇼이치 지음 / 김욱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48쪽 / 13,800원



바람 부는 날이면 나는 점 보러 간다

한때 저자는 '이중생활의 달인'이었다. 낮에는 대기업 부장, 퇴근 후에는 명리연구가. 인생의 고달픔과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동양철학에 관심을 쏟다가 주역과 사주를 공부해 직접 점을 치기에 이른 것이다. 몇몇 유명 언론사에서 기자 또는 데스크로 활약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양한 역할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들의 삶을 관조, 분석하면서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으며 그 후해야 복잡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급기야 자신의 특기인 사주와 주역, 여기에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을 녹여내 독특한 '사주 심리 치유 에세이'를 출간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지만 '사람이 운명보다 강하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정해진 운명이란 게 가혹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책을 통해 그가 독자에게 내놓는 점괘인 셈이다.

이지형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60쪽 / 12,000원

